

# 탈 농촌화 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자본

이 금 옥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 Th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in Rural Korea

Geum Ok Lee

Home Economics Division, Extension Bureau,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Summary

The community consciousness used to be the core of the social capital in rural Korea, and there used to be a long tradition of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in rural village community in Korea. However, recent trends in rapid urbanization or de-ruralization may affected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in rural society in Korea.

The social capital has been existed in terms of mutual trust, commonly shared norms, and cooperative behavior in farm work and daily life of rural people. Commonly shared norms and networks have accelerated social effectiveness and promoted cooperative work as well as moral and spiritual aspects of rural society.

Social capital in terms of community consciousness, participation of village work, visit and invitation of the neighborhood, and participation in various village group and networks were surveyed in JanggogRi, Jori Myun, Paju city, Gyeonggi province. The data collected from 65 persons, an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f de-rural area decreased in general with a few exception in the groups of alumni, family, religion and voluntary society. Social capital in terms of participation of village work, visiting the neighbors and voting increased slightly. Further research on social capital should be conducted to strengthe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the social capital should be adopted for livable community development.

**Key Words :** Community, Rural community, Community consciousness, Social capital, Trust, Network

### I. 들어가는 말

정보화의 진전으로 사이버 공간이 출현하면서 우리는 대면접촉이 없이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 필요한 부식재료를 사이버 쇼핑을 통하여 구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양상이 지속 발전될수록

공통의 유대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더욱 필요시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요즘의 농촌사회는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여성화, 농업의 비중 감소, 탈 농촌화 경향으로 인하여 감소했을지도 모르는 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의식을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끈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60년대에 시작한 경제개발계획,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그리고 '80년대의 첨단산업 육성 등 공업화 전략은 그 동시적 과정으로서 도시화를 가속화하였다. 공업위주의 산업성장과 도시의 팽창에 의한 도시성장 등 산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영향은 크다. 농업과 농촌 부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발전의 불균등 문제를 초월하였고, 농업과 농촌은 상대적 낙후를 가져왔으며 농촌과 도시지역, 농업과 공업간의 발전 격차를 심화시켰다(윤근섭, 1993).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지역사회 군부지역의 인구가 '75년 50.8%에서 2000년 현재 19.8%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계획에 의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파주시 조리면 장곡2리가 탈 농촌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전통적 농촌이 갖고 있는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한 결과이다.

연구의 출발점은 '99. 12. 19일에 연구자가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경관, 구조, 공장지대 등 마을 관찰을 시작으로 이장님 및 그의 부인과 마을 현황 및 주민들의 생활변화에 대하여 면접 인터뷰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2001년에 다시 본격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10년 전과 현재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0년 전과 현재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의 주요 내용은 공동체 의식에 관하여는 농촌주민의 조직활동 참여에 관한 한도현(2000)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5단계 척도로 작성하여 10년 전과 현재의 참여수준을 회상법을 통하여 기록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에 관하여는 가족과의 대화, 마을 주민과의 협력 및 교류, 마을일예의 참여, 투표 참가 등

에 중점을 두어 역시 10년 전과 현재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구성하였다. 6월 17일에 다시 마을 이장님을 방문하여 연구자가 설문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주민에 대하여는 이장님께 조사방법을 알려 드린 후 조사해 주시도록 협조를 구한 결과 5일 동안 총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었다.

## II. 이론적 배경 :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낸다. 1차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직장 동료, 상사와, 또는 가끔 만나는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직 속에서 인간관계를 갖고 생활한다. 또한 조직은 아니지만 이웃집과의 관계도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항상 그들을 믿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준수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으며 네트워크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들과 자주 만나는가? 협력관계는 잘 유지되는가?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가 더욱 강조되고 유지되는 조직분위기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내 일 같이 생각하는가? 처음 대하게 되는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마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즉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대변하고 있다.

Putnam은 25년간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 남부에 비해 잘 발달한 이탈리아 북부는 제도를 얼마나 발전시키고 잘 사는 지역으로 변화했는가에 대한 결론을 사람

들과의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협동 등의 사회적 자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정의하고 있다.

## 1.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높은 사회를 우리는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은 ‘지역’과 ‘주민’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이다(김일철 1986 : 214).

공동체는 흔히 전문집단 내지는 결사적 조직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을, 촌락, 도시 등과 같은 사회적 지역단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정신적 현상으로 타인과의 일체감 및 연대성의 추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튀니스가 분류한 *Geminschaft*(공동사회)와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Gesellschaft*(이익사회)를 떠올릴 수 있으며 이는 파슨스의 구조-기능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힐러리는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에서 일반공동체(*generic community*)와 농촌공동체(*rural community*)로 크게 나누었다.<sup>1)</sup> 아울러 지역사회에는 ① 지리적 공간 ② 사회적 상호작용 ③ 공동유대 등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Poplin) 왜냐하면 공동체는 지리적 공간 내에서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구성되고 한 또는 그 이상의 공동유대를 갖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로는 매키버의 것이 고

1) 힐러리는 일반공동체(*generic community*)는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지리적 영역,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공통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사회적 시스템, 개별성, 태도의 전체성, 과정)과 생태학적 관계 등 79개 정의로 나누었고 농촌공동체(*rural community*)는 크게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누고 그 속에 지리적 영역으로 나누어 자부심(*self-sufficiency*), 공동 생활, 친절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공동의 목표, 규칙, 방법의 소유, 지역 집단 등 15개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전적으로 인용되어 왔다. 그는 커뮤니티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하나는 지역성(*locality*),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 감정(*community sentiment*)이다. 매키버에 의하면 커뮤니티는 ‘기초적인 공동생활의 조건을 함께 하는 어떤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공동생활의 범위’이다. 즉 지역사회는 어떤 사람의 생활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고 그 기초지표는 지역성과 공동의식이다.

이렇게 본다면 커뮤니티의 번역어로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지역성과 공동의식을 명확하게 염두에 두고 지역사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엔 혼동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단순히 지리적 구분, 행정적 구분의 의미로 지역사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커뮤니티라는 말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개념은 세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남선, 2001). ① 공동체를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과 동일한 것(D.W Miner, S, Greer 등)으로 공장, 무역단체, 협력단체 등을 포함한다. ② 공동체를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 정신적 현상과의 관계(R.A Nisbet, B. Brownwell)로 심성적 공동체와 대중사회를 대조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공동체에서는 일체감(*identification*), 심성적 통일(*moral unity*), 자발성(*involvement*), 전체성(*wholeness*)을 특징으로 한다. ③ 공동체를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개념(D. E. Poplin, M.B. Susman 등)으로 이들은 인간이 공간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며, 사회적 심리적 욕구 충족이 근린성(*nearness*)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공간적 단위로서 특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았다.

지역사회 즉 커뮤니티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 기초지표를 지역성과 공동의식으로 본다

면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기초사회로 번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커뮤니티의 두 가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성과 공동의식의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라고 할 때는 지역성이라는 의미보다는 도덕적, 정서적,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 또는 커뮤니티의 한 측면만이 강조된다고 생각된다(한도현, 2000).<sup>2)</sup>

지역적 공간, 상호작용, 공동유대 등을 커뮤니티의 세 요소로 본다면 도시화 이전의 마을 사회는 이 세 요소들의 피리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산업화 이전의 마을에서는 일차적 관계가 강하고 비공식적 제재로 사회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개방화, 도시화되면서 생활의 지역적 공간은 확대되게 되었다. 자급 자족적인 농촌마을과 같은 지역사회를 현대 도시 사회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만큼 현대사회에 올수록 인간생활에서 지리적 공간의 제약성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하더라도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성이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다. 즉 “인간이 발을 땅에 붙이고 생활하는 한 지리적 공간의 공유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김일철 1998:95).

##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18세기의 사회학 고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콜만

(Colman, 1988)의 저작을 통해서이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인지적 관계가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콜만은 “관찰 가능한 물질적 자본으로 개인 안에 체화된 기술이나 지식 등을 인적 자본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내재한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였다(이재열, 1998).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의 속성을 지칭한다.<sup>3)</sup> 퍼트남은 25년에 걸친 이탈리아의 장기적, 체계적, 경험적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다음의 네 지표를 통해 강조한다. 사회적 시민성의 한 가지 중요한 지표로는 결사체 생활이 얼마나 활발한 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결사체 생활이 전반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어떤 지역은 선천적으로 “가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서로 단절되고 의심에 차 있는 ‘비도덕적 가족주의자들’과 일치함을 발견해 냈다. 토크빌은 근대사회에 있어서 시민적 활력과 결사체 및 지방신문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퍼트남, 안청시 외 역, 1994).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적 함의에 잘 참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았다. 어떤 지역에는 합창단과 축구팀, 조류관찰클럽과 로타리 클럽이 많이 있고 이들 지역의 특성을 시민들은 대부분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일간 신문을 열심히 읽는다. 그들은 공공이슈의 성격에 따라서 공동체 사안에 관여하지, 개인적인 관계나 후견인-피후견인 정치에 의해서 관

2) 한상진(1999:68-69)은 “공동체는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 정신적 현상,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사회적 연결망으로서의 인성적 공동체와 공간적 단위로서의 지리적 공동체(지역공동체)로 대별된다고 쓰고 있다.

3) 퍼트남은 20년간의 이탈리아 분석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제도를 잘 결합하여 발달을 가져온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남부와 달리 자발적 결사체 즉 시민적 공동체가 잘 결성되어 활성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런 자발적 결사체가 제도적 발달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여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은 서로가 공정하게 행동할 것과 법을 준수할 것을 믿는다. 이들 지역의 지도자들은 비교적 정직하다. 그들은 민중의 정부를 신봉하고 자신의 정적(政敵)과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다. 이곳의 시민과 지도자들은 모두 평등을 좋아한다. 사회적-정치적 네트워크도 수평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위계적이지 않다.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는 연대성과 시민 참여, 협력과 정직이다. 시민공동체의 망이 잘 발달해 있다. 규범과 네트워크는 그 지역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 Ⅲ. 파주지역의 탈 농촌화

파주시는 '99년 현재 182,762명의 인구 중 남자 93,462명(51.1%), 여자 89,300(48.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에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관계로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1,439명으로 0.8%를 차지한다(남 1,098명, 여 341명). 행정구역은 3개 읍과 11개 면, 2개 동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들 중 법정리 126개, 행정리 285개, 440개의 자연부락, 1,510개의 반으로 되어있으며 재정자립도 51.5%이다.('99년 11월 말 현재, 자료 : <http://city.paju.kyonggi.kr/information/statistics/>)

파주는 경기도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서울에서 40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예로부터 평양과 서울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는데, 본 연

구대상으로 하고있는 조리면 장곡2리는 바로 이 교통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파주의 남동부지역에 위치하며 고양시와 인접한 파주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파주시는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으로 풍부한 개발 가능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생태계보호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예방을 위하여 '96년부터 4단계로 나누어 4단계인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인구지표를 40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파주시의 인구 및 증가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읍면별 인구변화 중 조리면이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파주시 장곡 2리는 '83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아동영양지도시범마을로 육성한 지역이다. 당시 우리 정부와 UNICEF, FAO, WHO가 '67년부터 공동으로 협정을 맺고 곡물편중의 식사 형태를 개선하고 영양식품의 증산과 식량의 자급, 국민의 체위향상을 목적으로 약 20여 년에 걸쳐 응용영양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취학 전 어린이의 영양개선으로 체위를 향상하고자 젖소 5두, 흑염소 50두, 비육우 5두를 지원하여 마을 주민에게 키우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수입과 부산물을 이용하여 취학 전 아이들에게 공동급식을 실시한 바 있다. 이곳은 고양시 관산동과 파주시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서 탈 농촌화 이전에는 밭에서 농사 지은 채소 특히 오이를 많이 재배하여 서울의 구과발, 홍은동에 가서

<표 1> 파주시의 인구변화

연도	총인구(명)	문산	파주	법원	월릉	탄현	교하	조리	광탄	파평	적성	군내	금촌 1동	금촌 2동
'98	178,803	28,990	16,167	16,393	6,640	6,980	14,422	19,183	13,328	6,030	9,541	666	40,463	
'99	181,496	28,443	16,011	16,186	6,916	7,180	14,859	19,733	13,418	5,920	9,397	650	19,577	23,206
'00	191,726	27,917	15,799	16,335	7,024	7,596	15,237	27,307	13,502	5,897	9,104	624	45,384	

\* 읍 : 문산, 파주, 법원 \* 기타는 면 지역임

\*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경기도, 각 연도(1999, 2000, 2001)

팔아 소득을 제법 올렸다. '90년도를 전후해서 마을에 공단이 입주한 후로는 주민들이 공장에 취직하여 농업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고, 그동안 밭을 이용하여 채소농사를 짓던 것을 하지 않게 되었다.

#### IV. 조사 결과

'83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아동영양시범마을 선정 당시와 현재의 마을 개황을 대략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지면적은 논 24.2ha, 밭 11.1ha 등 35.3ha로서 호당 0.84ha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99년 현재는 약간 줄은 상태이다. '83년도에는 육성우, 비육우, 돼지 등 가축을 다양하게 키웠으나 현재는 단지 개를 70~80마리 키우고 있다. 생활환경은 많이 향상되어 가장 기본적인 주거시설 중에서 부엌이 입식으로 개량되지 않은 집이 4~5호에 불과하다. 화장실은 거의 모두가 수세식으로 바뀌었다. 당시 새마을 부녀회원은 30명이었으며, 농촌진흥기관에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 발전의 지도자로 육성하고 있는 생활개선회('94년 사단법인화)는 없다. 마을단위 4-H는 없으며 군 4-H가

있고, '73년부터 역사를 갖고 있는 농촌도자회는 5명만이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6명이 조직되어 있다.

농가 호수 및 인구를 살펴보면 '83년에 농가 42호, 비농가 6호 등 48호에서 221명(호당 4.6명)이 살았는데 '98년에는 농가 40호, 비농가 80호 등 총 120호에서 280명(호당 2.3명)이 사는 마을로 변모하였으며 장곡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15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완전한 탈 농촌마을이 되었다.

#### 1. 공동체 의식 감소

지역 공동체 참여 내용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다. 10년 전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모임은 친목회가 가장 높고, 반상회, 향우회 또는 동창회, 종교모임 참여 순이었으며,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모임은 종교모임 순이었다. 특히 계(rotating credit associating)는 자발적 모임체로서 사회적 자본에 의해 촉진되며 세계의 모든 대륙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저축기구의 한 형태로서 발전되고 있음에 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1.4%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어 퍼

<표 2> 지역 공동체 참여 수준

구 분	적 극 참여한다		참여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0년전	현재	10년전	현재	10년전	현재	10년전	현재	10년전	현재
향우회, 학교동창회	4.0%	5.3%	38.7%	38.7%	18.7%	20.0%	29.3%	26.7%	9.3%	9.3%
종친회	2.7	2.7	21.3	24.0	28.0	30.0	34.7	32.0	13.3	10.7
친목회(응답 : 73명)	8.2	11.0	39.7	38.4	21.9	27.4	23.3	19.2	6.8	4.1
반상회(응답 72명)	8.3	12.5	34.7	33.3	25.0	27.8	27.8	23.6	4.0	2.8
종교 모임	17.3	17.3	24.0	25.3	28.0	26.7	18.7	20.0	12.0	10.7
농업인 단체	8.0	8.0	10.7	10.7	10.7	10.7	18.7	17.3	52.0	53.3
자원봉사활동	-	-	20.0	21.3	20.0	21.3	14.7	12.0	45.3	45.3
농민운동단체	-	-	-	-	-	-	2.7	2.7	97.3	97.3
계모임(응답:71명)	-	-	1.4	-	-	-	1.4	1.4	97.2	98.6

트남의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로부터 스코틀랜드까지, 페루에서 베트남, 일본에서 이집트, 미동부의 서인도제도 이민으로부터 미 서부의 멕시코 이민들까지,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중국의 촌락민에서 멕시코시티의 은행간부와 경기 예측자들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퍼트남, 282)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반상회 참석 여부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편이거나 적극 참여하는 편이 45.8%로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2.8%로서 문옥표 등의 연구결과(45.7%)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원량 분석 결과 현재는 10% 수준에서, 10년 전에는 5% 수준에서 유의 차가 있었다.

직업에 다른 공동체 의식을 검증하여 본 결과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농업과 무직의 활동은 줄었으나 기타 직업에서 활동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퍼트남 등이 강조하고 있는 계모임 활동 참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0년 전에는 2.7%가

계모임에 참여했으나 현재 계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예전에 계를 해 봤다는 사람은 단지 7명(9.3%)이며 함께 했던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 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계 활동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계 활동 참여는 대략 50%, 시설 농업인들의 계 경험 78.4%(한도현, 2000)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사회적 자본의 변화 양상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에 대하여 21.3%가 친목단체, 18.7%가 상조회, 산악회 등 기타 3.9%, 48%는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마을에 큰 일이 있을 경우 협력하는 경우가 10년 전에는 65.3%, 93.3%가 협력한다고 답하였다. 이웃집을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10

<표 3> 지역공동체 참여에 관한 일원량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변량 분석						
			집단간변량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유의도	
현재	적극 참여	31.8649	4.8486	집단간변량	136.510	3	45.503	2.272	.089
	참여하는 편	29.6667	3.5590						
	보통	32.2143	3.8666						
	전혀 참여 안함	35.6250	4.1036	집단내변량	1221.890	61	20.031		
	평균	32.2000	4.6071	평균	1358.400	64			
10년 전	적극 참여	32.1081	4.6832	집단간변량	165.832	3	55.277	2.781	.049
	참여하는 편	30.5000	3.3912						
	보통	33.5000	4.4678						
	전혀 참여 안함	36.5000	3.8914	집단내변량	1212.568	61	19.878		
	평균	32.8000	4.6409	평균	1378.400	64			

<표 4> 직업별 지역공동체 참여에 관한 일원량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유의도	
현재	농업	31.5882	4.0320	집단간변량	244.371	2	122.186	6.800	.002
	무직	30.7000	4.7281						
	기타	35.2778	3.4778	집단내변량	1114.029	62	17.968		
	계	32.2000	4.6071	평균	1358.400	64			
10년 전	농업	31.9412	4.1903	집단간변량	231.492	2	115.746	6.257	.003
	무직	31.4667	4.9182	집단내변량	1146.908	62	18.499		
	기타	35.8333	3.1107	평균	1378.400	64			
	계	32.8000	4.6409						

<표 5> 사회적 자본의 비교

구분	10년 전		현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마을이 큰 일이 있을 경우 협력한다	65.3	34.7	93.3	6.7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초대하는 횟수(1주일)	없다	70(93.3)	-	36(48.0)	-
	1회	3( 4.0)	-	34(45.3)	-
	2회	2( 2.7)	-	3( 4.0)	-
	3회	-	-	1( 1.3)	-
	4회	-	-	1( 1.3)	-
투표에 꼭 참여하는가	꼭 참여한다	69(90.7)	-	69(92.0)	-
	반 이상 참여	6( 8.0)	-	6( 8.0)	-
	반 정도 참여	1( 1.3)	-	-	-
마을 주민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68(90.7)	7( 9.3)	69(92.0)	6(8.0)	
마을민의 이웃관계(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려 하고 있다)	-	-	75(100.0)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가?	28(37.3)	47(62.7)	53(70.7)	22(29.3)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가?	45(60.0)	30(40.0)	46(61.3)	29(38.7)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1끼를 같이 함	6( 8.0)	-	17(22.7)	-
	2끼를 같이 함	25(33.3)	-	35(46.7)	-
	3끼를 같이 함	44(58.7)	-	23(30.7)	-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취미가 있는가	2( 2.7)	73(97.3)	2( 2.7)	73(97.3)	



년 전에는 93.3%에서 현재는 48.0%로 현저하게 줄었으며 1회 방문이 10년 전에는 4.0%에서 현재는 45.3%로 늘었으며 2~3회 방문도 각각 2.7%에서 4.0%, 없음에서 1.3%로 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가를 알아본 결과 꼭 참여한다가 90.7%에서 92.0%로 늘었으며 50% 이상 참여는 변동이 없으며 50%정도 참여는 10년 전에 1.3%였음을 보여준다.

마을주민들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7%에서 92.0%로 늘었으며 마을민의 이웃관계는 연구대상자 100%가 이웃에 어떤 사람과도 서로 왕래하며 지낸다고 하였다.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가에 대하여 10년 전에는 37.3%에서 현재는 70.7%로 늘었으며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본다는 경우가 과거 37.3%에서 현재 70.7%로 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같이하는 가를 알아본 결과 3끼 모두를 같이하는 경우가 58.7%에서 30.7%로 많이 줄었음을 나타낸다. 가장 변화가 없는 항목은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취미가 있는 경우가 10년 전, 현재 모두 2.7%로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마을에 큰 일이 있을 경우 협력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10년 전의 응답내용에서 현재의 응답내용을 점수화하여 t-test를 해본 결과 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이는 10년 전보다 협력관계가 더욱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10년 전과 현재의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이웃주민을 초대하는 횟수가 10년 전에는 0.09회였는데 현재는 0.6회 정도이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본 결과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하루 중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횟수는 10년 전에 2.5회에서 현재는 2.08회였으며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주로 상의 할 대상자는 98.7%가 집안사람, 마을 안의 사람과 상의하는 경우는 1.3%를 나타냈다.

마을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주로 남편이 참석 64%, 주로 부인이 참석 9.3%, 남편, 부인이 반반씩 참석 2.7%, 거의 참석 안 하는 경우도 24%나 되었다. 이를 남편 참석 41.1%, 주로 부인 참석 11.3%, 반반씩 참석 1.3%, 거의 참석

<표 6> 마을 일 참여에 관한 t-test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	df
마을에 큰일이 있을 경우 협력 여부	10년 전~현재	.2800	.5083	4.770***	74

<표 7> 이웃집 방문 또는 초대에 관한 t-test

구 분		평 균	평균편차	t	df
일주일에 몇 번 이웃주민을 초대하거나 방문하는가	10년 전	9.333E-02	.3739	-7.421***	74
	현재	.6267	.7493		

<표 8> 가족과 함께 하루에 식사하는 횟수에 관한 t-test

		평 균	표준편차	t	df	Sig. (2-tailed)
식 사 횟 수	10년 전	2.5067	.6446	4.393	74	.000
	현재	2.0800	.7308			

안 하는 경우 45.7%를 나타낸 문옥표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마을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장곡 2리 마을에서는 주로 남편 참석율이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10년 전보다 17.1% 포인트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주로 남편이 결정 60.0%, 남편결정/부인과 의는 8.0%, 부부 같이 결정 20.0%, 주로 부인결정 12.0%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이 마을에 토박이인 사람은 66.7%이며, 10년 전에 비하여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89.3%,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9.3%였다. 생활에 만족하는 부분은 수입이 많아짐 48%,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가 좋아짐 12%, 생활이 편리해짐 36%, 기타 2.7%였다. 생활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하여 수입이 줄었다 36%,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가 나빠졌다 38.7%, 오히려 생활의 편리한 부분이 줄었다에도 24.0%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마을민의 이웃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100%가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려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문옥표의 연구(53.6%) 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탈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곡 2리를 선정하여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군부에 살고 있는 인구가 다른 도에서는 오히려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군부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5년 13.3%에서 '95년 19.4%로 6.1% 포인트 늘어났고, 장곡 2리의 인구 역시 늘었는데 '83년 221명에서 '98년 280명으로 26.7% 포인트가 늘어 경기도 지역의 평균인구 증가보다 높

았다.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있는 어린이 수는 '83년 현재 31명으로 마을 전체 인구의 14.0%를 차지하던 것에서 5.4%로 줄었다. 이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못했으나 '90년을 전후로 해서 이 마을에 공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연령층이 늘은 것으로 해석해도 무관하리라 본다. 공장의 입주는 이 마을의 주민들의 근로형태와 소득구조를 바꾸어 놓았는데 예전에 채소를 재배하여 서울의 구과발 지역에 내다 팔음으로써 채소농사를 활발하게 지었으나 이제는 밭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약간 줄어든 상태에 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 농촌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은 10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음을 볼 수 있다. 향우회·학교동창회, 종친회, 반사회, 종교모임 등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에 있어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농촌지역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대표로 되어 오던 계의 참여율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없는 편이고 단지 1.4%만이 미미한 참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수준 이상을 살펴보면 공동체 의식이 약간씩 증가한 것도 볼 수 있다. 종교모임에 참여율은 42.6%로 증가율은 많지 않지만 높은 수준의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반사회 등에서도 약간의 증가를 볼 수 있다.

보통 수준의 참여를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반사회, 친목회, 종친회 참여 비율에서 가장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고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는 종교, 농업인 단체, 농민운동 등의 참여수준이다.

종합적으로 보아 공동체 의식의 감소는 분명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여수준이 증가한 향

우회(학교동창회), 종친회, 종교모임,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별 공동체 의식을 분석하여 본 결과 무직, 농업, 기타의 순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전통적 농촌공동체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해석하는 함의를 주고 있다. 탈 농촌마을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는 직업을 농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농업을 하는 사람보다 높다는 것은 농촌지역의 공동체의 붕괴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 경각심을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생활로 인하여 농촌공동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램이기도 하다.

셋째, 공동체는 사회적자본의 하나의 하위체계로 볼 수 있는데, 공동체 의식은 감소하였지만 일부 공동체에서의 참여 수준이 증가하였음을 감안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분류한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마을일의 협력,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초대, 투표 참가 등에 있어 많은 사회적 자본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마을민의 100%가 이웃에 있는 어떤 사람과도 왕래하고 있다는 점은 문옥표의 결과 25.2%가 왕래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비농가가 농가의 두 배를 차지하고 있는 탈 농촌지역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높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가족과의 대화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반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취미가 없다는 사람이 97.3%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 공동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의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다른 모임 활동에 참가 할 경우에 가족원의 의식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가족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사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 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한 리더의 육성이나 기관에서의 프로젝트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결사체의 육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며 뿌리이다. 노령화, 여성화, 도시화 등 많은 변화를 겪어오는 가운데서도 농촌 특유의 공동체로서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을 늘리기 위한 주민 상호간의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유지 발전의 원동력을 발견해 내야 할 것이다.

## VI. 참고 문헌

1. 김남선, 2001, 지역사회 자본과 사회자본과의 관계, 지방화시대의 생활과학의 역할과 응용방안 학술대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농촌진흥청
2. 김일철, 1995, 한국농촌에서의 재구조화 과정, - 한국농촌사회학회, WTO 체제하의 세계각국의 농촌사회발전전략 -
3. 김일철, 1998, 지역사회와 인간생활, 서울대학교출판부
4. 문옥표외, 1993,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개발연구소, 1976, 농촌개발실습장사업보고서
6. 소진광, 1999,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 논리 -
7. 안청시 외 6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의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박영사
8. 왕인근, 1996, 농촌사회학 개론
9. 윤근섭, 1993,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

- 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
10.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 계간사상 - 여름호
11. 정지웅, 1986, 한국의 농촌 - 그 구조와 변화
12. 파주군농촌지도소, 1983, 식생활 및 영양개선 연찬회 자료
13. 한도현, 2000, 기업형 농민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관계,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
14. OECD, The contribution of amenities to rural development, 1992
15. OECD, Cultivating Rural Development, 1999
16. Dennis E. Poplin, 1979,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http://city.paju.kyonggi.kr/information/statistics/>  
(2001년 10월 10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